

음주예방 프로그램이 여고생의 음주관련 지식과 태도, 음주거절 자기효능 및 음주행위에 미치는 효과*

최 순 희¹⁾ · 박 민 정²⁾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변화하는 과도기적 과정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이지만 신체·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의 음주가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이므로 국내외적으로 청소년이 술을 사용하지 않고 성인기에 도달하는 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이 건강정책의 최대목표이다(Topolski et al., 2001).

우리나라 청소년들 사이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약물이 알코올이었으며(Park & Lee, 1999), 고등학생의 음주준이 비음주군에 비해 경찰서 연행 7.5배, 흡연을 11배, 성경험 9.6배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고 여고생의 85.7%가 음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를 1회 이상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음주로 인해 초래되는 결과가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Han & Han, 2001). 또한 여고생의 음주경험율도 92.4%였고 폭음의 횟수도 남학생과 차이가 없었으며(Jang, An, Kim, Kim, & Yang, 2002), 음주경험이 있는 고등학생 중 39.4%가 문제성 음주자인데 이 중 여고생이 차지하는 비율도 29.6%이었다. 이런 음주 문제로 인해 적대감, 우울, 정신증, 강박증 등이 높게 나타났고, 정신적 폐해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Kim, 1999) 청소년 음주문제가 남녀학생의 공통적인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많은 학생들의 알코올에 대한 지식이 음주 결정과 행동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교육을 통한 지식 증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Yoon, 2000; Han & Han, 2001), 음주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음주에 대한 태도가 더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고(Moon, Yang, Park, & Lee, 2000), 음주거절 자기효능이 낮을수록 음주문제를 더 경험하였다(Choi, 1999). 또한 여고생의 68.7%가 고등학생 음주는 괜찮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고(Kam et al., 2000), 이들의 음주에 대한 교육 요구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Jeong, 1999), 실업계 고교생의 60%이상이 술의 습관성이나 금단증상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으므로(Bae, 2000) 실업계 여고생의 음주예방을 위해 음주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를 정립시키고 자기효능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그 동안 고교생을 대상으로 음주예방프로그램을 제공한 선행연구들에서 매주 2회 3주간 제공받은 남고생의 경우 지식의 증가는 유의하였으나 태도나 음주량의 변화는 없었으며(Kim, 2001a), 매주 3회 2주간 제공받은 실업계 남고생(Lim & Kim, 2002)은 음주거절 자기효능 증가, 음주빈도와 음주량의 유의한 감소가 있었는데 이런 결과들의 차이를 통해서 대상자에게 적절한 프로그램의 중요성과 단기간의 프로그램제공으로 태도변화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처럼 고교생 대상 연구들도 많지 않았지만 특히 실업계 고교생이 인문계보다 폭음, 음주문제 경험율 및 음주동기도 유의하게 높았고, 실업계 학생을 위한 음주예방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주장(Yoon, Kim, & Jang, 1999; Kang, Shin, Jang, Na, & Cho, 2004)을 통해서 실업계 여고생의 음주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주요어 : 음주예방프로그램, 지식, 태도, 음주거절, 자기효능, 음주행위

* 이 논문은 2005년도 전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2) 전남과학대학 간호과 겸임교수(교신저자 E-mail: sh3749@hanmail.net)

투고일: 2008년 1월 18일 심사완료일: 2008년 4월 6일

할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실업계 여고생들이 잘못된 경로를 통해 음주에 대한 지식과 기대를 형성하기 전에 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시키고, 음주에 대한 태도와 가치를 변화시킴으로써 음주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학교차원의 교육프로그램 제공이 최선의 방법으로 여겨졌다. 문헌상 효과적인 음주예방프로그램의 요소(Kim, 2003)로 또래군의 압력행사의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음주거부기술(Choi, 1999), 대상자에게 적절한 프로그램, 장기간 실시, 한 학급 규모 등의 내용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하여 본 연구는 연구자가 학생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면서 알코올에 대한 정확한 지식 및 정보 제공과 음주에 태도, 음주거절 자기효능 및 음주행위 변화에 중점을 둔 대상자 중심의 음주예방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그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여고생의 음주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목적

음주예방프로그램 종료 3개월 후 실험군과 제공받지 않은 대조군의 음주관련 지식과 태도, 음주거절 자기효능 및 음주행위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가설

- 가설 1. 음주예방프로그램 종료 3개월 후 프로그램을 제공 받은 실험군은 제공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음주관련 지식점수가 높을 것이다.
- 가설 2. 음주예방프로그램 종료 3개월 후 프로그램을 제공 받은 실험군은 프로그램을 제공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음주관련 태도점수가 높을 것이다.
- 가설 3. 음주예방프로그램 종료 3개월 후 프로그램을 제공 받은 실험군은 제공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음주거절 자기효능점수가 높을 것이다.
- 가설 4. 음주예방프로그램 종료 3개월 후 프로그램을 제공 받은 실험군은 제공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음주횟수가 낮을 것이다.
- 가설 5. 음주예방프로그램 종료 3개월 후 프로그램을 제공 받은 실험군은 제공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1회 평균음주량이 낮을 것이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음주예방프로그램이 여고 1학년생들의 음주에 대한 지식과 태도, 음주거절 자기효능 및 음주행위 정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에 의한 유사실험 연구이다.

연구 대상

연구대상은 S시 지역 4개 실업계 고등학교중 1개교를 제외한 3개교 1학년 여학생 중 C교 33명씩 2개 반 66명을 실험군으로, H교와 J교 각 1개반 35명씩 70명을 대조군으로 할당하였다. 자료는 먼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학교의 보건교사와 담임교사의 협조를 얻어 2006년 5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수집하였으며 응답이 불성실한 대조군의 자료 3부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연구 도구

● 음주관련 지식

지식 측정을 위해 Kim (2001a)의 음주관련 지식도구 10문항을 토대로 본 연구자가 관련문헌(Lee, 2004)을 검토한 후 연구대상자에 맞게 6문항은 약간 수정, 2문항은 삭제하고, 새로운 7문항을 첨가해 총 15문항의 도구를 구성하였다. 본 도구는 2명의 보건교사의 자문을 받아 예비조사를 거쳐 사용하였으며, 정답이면 1점, 오답이면 0점 처리하여 점수범위는 0~15점이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음주에 대한 지식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Kuder-Richadson 20은 .77이었다.

● 음주관련 태도

태도 측정을 위해 Kim (2001a)의 음주관련 태도 10문항을 토대로 Jekarl (2001)의 태도도구 중 대상자에게 적합한 5문항을 추가한 총 15문항의 4점 척도를 구성하였고, 2명의 보건교사의 자문을 받아 예비조사를 거쳐 사용하였으며, 점수범위는 15~60점이고 점수가 낮을수록 음주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본 도구의 Cronbach's alpha 값은 .78이었다.

● 음주거절 자기효능

본 도구는 Choi (1999)가 사용했던 음주거절 자기효능 도구인 7문항의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음주거절의 자기효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Choi (1999)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8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 음주행위

대부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음주행위를 음주횟수와 음주량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지난 1달 동안 1잔 이상 마신 음주횟수와 한번에 마시는 술의 양을 표준 잔으로 계산한 1회 평균 음주량으로 측정하였다. 표준 잔의 정의는 포함된 알콜 함량을 기준으로 소주 1병=7잔, 맥주 큰병=2.5잔, 맥주 중간병=2잔, 캔/맥주 작은병=1잔, 막걸리 1병=4.5잔, 청하 1병=3.5잔 으로 계산하였다(Lim, 1999; Lim & Kim, 2002).

● 음주예방프로그램

음주관련 지식을 향상시키고 올바른 음주태도를 형성시키기 위해 Kim (2001b)의 6시간 프로그램의 내용을 토대로 2명의 보건교사의 자문을 얻어 대상자에게 맞게 재구성한 술에 대한 마인드맵 작성, 돼지 간 실험, 음주가상체험, 스트레스관리 및 모의재판 역할극이 포함된 총 8시간이 소요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연구진행 절차

연구진행 절차는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인 보건교사가 두 군에게 연구의 필요성을 설명하여 연구에의 참여를 허락받은 후 사전조사를 하였고, 실험 군에게는 보건교사가 정규시간에 4주 동안 주당 1시간씩 2회 총 8시간의 음주예방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프로그램종료 3개월 후에 두 군에게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공한 음주예방프로그램 내용의 요약은 아래와 같다.

- 프로그램 소개, 술에 대한 마인드맵 작성 및 발표하기(2시간: 강의, 그룹토의, 비디오시청)
- 음주가 간에 미치는 영향(1시간: 돼지 간 실험 및 강의)
- 술과 여성(1시간: 비디오시청 및 토의)
- 가상 음주체험(1시간: fatal vision 착용 후 선 따라 걷기)
- 스트레스 관리하기(1시간: 스트레스정도 측정과 이완요법 실시)
- 모의재판을 통해 음주문화 살피기(1시간: 주어진 상황에 대한 그룹별 역할극 발표하기)
- 음주거절하기(1시간: 음주권유 경험 및 대응방법에 대한 그룹토의 및 발표)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동질성 검정은 Chi-square test나 t-test, 음주예방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음주관련 지식과 태도, 음주거절 자기효능 및 음주행위에 대한 차이검정은 t-test와 ANCOVA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Table 1> Homogeneity test of general characteristics and study variable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in pretest

Variable	Exp. (n=66)	Con. (n=67)	χ^2 or t	p
	n (%) or M±SD	n (%) or M±SD		
Family type				
Nuclear	61(92.4)	57(85.1)	1.73	.273
Large	5(7.6)	10(14.9)		
School performance				
High	10(15.2)	7(10.4)	2.21	.330
Middle	34(51.5)	43(64.2)		
Low	22(33.3)	17(25.4)		
Drinking experience				
Yes	51(77.3)	49(73.1)	.30	.281
No	15(22.7)	18(26.9)		
Drinking prevention program				
Participated	13(19.7)	15(22.4)	.14	.703
Not participated	53(80.3)	52(77.6)		
Knowledge	4.7±2.2	4.5±2.8	.39	.691
Attitude	34.2±6.4	35.6±6.1	-1.28	.200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14.9±2.6	15.3±2.1	-.55	.58
Drinking behavior				
Number of drinking	0.9±1.6	0.8±1.4	.16	.870
Drinking amount	3.2±3.4	3.0±3.3	.25	.798

Exp.: Experimental group, Con.: Control group

실험군과 대조군에 대한 동질성 검정

본 대상자의 가족 형태, 학교성적, 음주경험 및 음주예방프로그램의 사전참여여부 그리고 사전조사시 측정된 연구변인인 음주관련 지식, 태도, 음주거절 자기효능, 음주횟수, 평균음주량 모두 실험군과 대조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이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음주관련 지식, 태도, 음주거절 자기효능 및 음주행위

• 가설 1: 음주예방프로그램 종료 3개월 후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제공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음주관련 지식점수가 높을 것이다.

위의 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의 음주관련 지식점수를 t-test로 분석한 결과, 실험군은 11.4점으로 대조군의 4.5점보다 유의한 차이($t=16.89, p=.001$)로 높았으며, 음주예방프로그램 제공 전 두 군의 사전 지식점도의 차이를 조정하는 공변량분석 결과에서도 프로그램의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F=256.30, p=.001$) 가설 1은 지지되었다<Table 2>.

• 가설 2: 음주예방프로그램 종료 3개월 후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제공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음주관련 태도점수가 낮을 것이다.

위의 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의 음주관련

태도점수를 t-test로 분석한 결과, 실험군은 18.6점으로 대조군의 24.3점보다 유의한 차이($t=-5.66, p=.001$)로 낮았으며 두 군의 사전점수의 차이를 조정하는 공변량분석 결과에서도 프로그램의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F=43.35, p=.001$) 가설 2는 지지되었다<Table 3>.

• 가설 3: 음주예방프로그램 종료 3개월 후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제공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음주거절 자기효능 점수가 높을 것이다.

위의 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의 음주거절 자기효능점수를 t-test로 분석한 결과, 실험군은 21.6점으로 대조군의 17.6점보다 유의한 차이($t=6.66, p=.001$)로 높았으며, 공변량분석 결과에서도 프로그램의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F=43.86, p=.001$) 가설 3은 지지되었다<Table 4>.

• 가설 4: 음주예방프로그램 종료 3개월 후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제공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음주횟수가 낮을 것이다.

위의 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의 음주횟수를 t-test로 분석한 결과, 실험군의 음주횟수는 0.6회로 대조군의 1.4회보다 유의한 차이($t=-2.50, p=.014$)로 낮았으며, 공변량분석 결과에서도 프로그램의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F=6.12, p=.015$) 가설 4는 지지되었다<Table 5>.

<Table 2> ANCOVA for the knowledge score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Source	SS	df	MS	F	p
Covariate					
Pretest: knowledge	5.35	1	5.35	.90	.343
Main effect	1513.25	1	1513.25	256.30	.001
Error	767.54	130	5.90		
Corrected total	2281.72	132			

<Table 3> ANCOVA for the attitude score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Source	SS	df	MS	F	p
Covariate					
Pretest: attitude	.90	1	.90	.01	.892
Main effect	2113.65	1	2113.65	43.35	.001
Error	6337.16	130	48.74		
Corrected total	8483.66	132			

<Table 4> ANCOVA for the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score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Source	SS	df	MS	F	p
Covariate					
Pretest: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35	1	.35	.03	.863
Main effect	518.95	1	518.95	43.86	.001
Error	1537.95	130	11.83		
Corrected total	2056.94	132			

<Table 5> ANCOVA for the number of drinking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Source	SS	df	MS	F	p
Covariate					
Pretest: Number of drinking	13.86	1	13.86	4.34	.039
Main effect	19.56	1	19.56	6.12	.015
Error	415.24	130	3.19		
Corrected total	447.88	132			

<Table 6> ANCOVA for the drinking amount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Source	SS	df	MS	F	p
Covariate					
Pretest: drinking amount	4.07	1	4.07	.41	.519
Main effect	82.88	1	82.88	8.52	.004
Error	1235.24	127	9.72		
Corrected total	1320.93	129			

• 가설 5: 음주예방프로그램 종료 3개월 후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제공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1회 평균음주량이 낮을 것이다.

위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의 1회 평균 음주량을 t-test로 분석한 결과, 실험군의 음주량은 1.1잔으로 대조군의 2.7잔보다 유의한 차이($t=-2.94, p=.004$)로 낮았으며, 공변량분석 결과에서도 프로그램의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 ($F=8.52, p=.004$) 가설 5는 지지되었다<Table 6>.

논 의

본 연구에서 주당 2회씩 4주 동안 음주예방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의 3개월 후에 측정한 음주관련 지식 점수가 제공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유의한 차이로 높게 나타나 프로그램 종료 3개월 후에도 본 프로그램의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여고생의 술과 음주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데 적절하고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들 즉 고등학생에게 주당 2회 3주간 제공했던 Kim (2001a)의 결과, 고교 남학생에게 주당 1회 총 9회의 생활기술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했던 Hong과 Kang (2003)의 결과, 중학교 1학년생에게 주당 1회 4주간 제공했던 Lee, K. H. (2004)의 결과, 고교 1학년생에게 주 2회 4주간 제공했던 Choi (2005)의 결과들과 비교해 보면 음주예방프로그램 제공의 기간이나 횟수 및 대상이 달랐지만 모든 연구들에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음주지식이 유의하게 더 높았던 점은 본 결과와 일치되었으므로 고등학생의 음주예방교육은 적어도 1개월 동안 5회이상 주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중학교 1-3학년생에게 주당 1회 4주간 혹은 주당 2회 2주간 교육했던 Lee, J. K. (2004)의 연구에서 교육전과 후 남학생의 지식정도의 변화는 없었으나 여학생의 지식은 유의

한 증가가 나타나 본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되었다. 술을 포함한 약물남용예방을 위해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 필수적이라고 알려진 바와 같이 청소년들이 잘못된 경로를 통해 음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형성하기 전에 음주예방교육을 통해 술에 대한 올바른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본 대상자중 음주예방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의 3개월 후 태도점수가 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유의한 차이로 낮게 나타나 본 프로그램이 여고생의 음주에 대한 태도를 부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결과는 음주예방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술에 대한 태도가 더 부정적으로 변화되었던 결과(Lee, 2004b)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고교생에게 음주예방프로그램을 제공한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술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결과(Kim, 2001a)나 중학교 2년생의 음주에 대한 태도가 음주예방 프로그램 제공전과 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결과(Yoon, 2002)들은 본 결과와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프로그램제공이나 교육의 횟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지기 보다는 프로그램의 진행이 정규시간이 아닌 방과 후 활동시간에 이루어졌거나(Yoon, 2002), 교육집단의 규모가 2-3학급을 통합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Kim, 2001a) 교육이 제공된 시간이나 방법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로 사료된다. 여고생의 68.7%가 고등학생의 음주는 괜찮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보고(Kam et al., 2000)나 중고등학교 교사의 96%가 교과과정에서 음주를 비롯한 약물남용에 대한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60.8%가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는 보고(Nam, Lee, Choi, & Lee, 2001) 등을 통해서 볼때 학교당국에서는 정규교과목 시간에 보건교사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정책의 마련과 아울러 본 음주예방프로그램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서 학생들의 음주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본 대상자중 음주예방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의 3개월

후 음주거절자기효능 점수가 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유의한 차이로 높게 나타나 본 프로그램 내용 중 음주권유대응방법을 적용하는 역할극에의 참여가 여고생의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결과는 실업계 고교 남학생을 대상으로 음주예방프로그램을 제공한 1개월 후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음주거절 자기효능이 유의하게 높았고 음주빈도와 음주량이 낮게 나타났던 결과(Lim & Kim, 2002)와 일치하여 자기효능이 음주횟수나 양을 감소시키거나 금주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대상자중 음주예방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의 3개월 후 음주횟수나 1회 평균음주량이 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유의한 차이로 낮게 나타나 본 프로그램이 여고생의 음주행위정도를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 대상으로 음주예방프로그램 제공 1달 후 실험군의 한 달간 음주빈도와 음주량으로 측정된 음주행위정도가 대조군보다 유의한 감소를 나타냈던 결과(Kim, 2001b)나, 실업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음주프로그램 제공 후 실험군의 음주빈도와 음주량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감소되었던 결과(Lim & Kim, 2002) 그리고 중학교 2학년생중 비음주자 비율이 음주예방프로그램 제공전보다 후에 유의하게 증가되었던 결과(Yoon, 2002)들과 일치하였다. 그러나 본 결과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음주 예방프로그램을 제공한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음주량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Kim (2001a)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상기한 결과들을 통해서 음주예방프로그램의 제공기간이나 횟수보다는 대상자에게 적절한 프로그램을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속에서 제공 하는 것이 음주행위감소에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프로그램은 대상자의 94%이상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유익했던 주제가 돼지 간 실험, 가상 음주체험, 술과 여성으로 나타났으므로 대상자에게 적절한 내용으로 강의 위주가 아닌 대상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학습방법이 효과적임을 입증해주고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음주예방프로그램이 여고생의 음주관련 지식, 태도 및 음주 행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도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를 이용한 유사실험 연구이다.

자료수집은 2005년 5월 부터 9월까지 이루어졌으며, 대상자는 S시 소재 3개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여학생들중 편의표집한 실험군 66명, 대조군 67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음주예방프로그램은 실험군에게 4주 동안 매회 50분씩 주 2회로 총 8회 적용되었다.

음주예방프로그램에 대한 지식측정은 Kim (2001a)의 도구를, 태도측정은 Kim (2001a)과 Jekarl (2001)의 도구를 각각 참조하여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음주거절 자기효능은 Choi (1999)의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음주행위는 음주횟수와 1회 평균 음주량(Lim, 1999; Kim, 2001b; Lim & Kim, 2002)으로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hi-square test, t-test 및 ANCOVA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음주예방프로그램 종료 3개월 후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제공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음주관련 지식점수가 높을 것이다’는 본 가설은 지지되었다($F=256.30, p=.001$).
- ‘음주예방프로그램 종료 3개월 후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제공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태도점수가 낮을 것이다’는 본 가설은 지지되었다($F=43.35, p=.001$).
- ‘음주예방프로그램 종료 3개월 후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제공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음주거절 자기효능 점수가 높을 것이다’는 본 가설은 지지되었다($F=43.86, p=.001$).
- ‘음주예방프로그램 종료 3개월 후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제공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음주횟수가 낮을 것이다’는 본 가설은 지지되었다($F=6.12, p=.015$).
- ‘음주예방프로그램 종료 3개월 후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제공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1회 평균음주량이 낮을 것이다’는 본 가설은 지지되었다($F=8.52, p=.004$).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본 음주예방프로그램이 여고생의 음주관련 지식정도와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을 증가시켰고 부정적인 음주태도를 지니게 하였으며 음주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소시켰음을 확인하였으므로 3개월이 지난 후에도 본 프로그램의 효과가 지속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또한 본 대상자들이 가장 선호했던 학습매체가 가상음주체험과 돼지 간 실험 및 비디오시청으로 나타났으므로 앞으로 음주예방프로그램은 일방적인 주입식보다는 대상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더 효과적일 것으로 제언하는 바이다.

References

- Bae, S. M. (2000). *The guidance plan of substance abuse and preventive conscious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won University, Chongju.
- Choi, N. H. (2005). *The effect of a adolescent alcohol abuse prevention program*. Unpublished master's thesi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 Choi, H. (1999). *Developing a predictive model for alcohol*

- consumption behavior among korean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Han, S. H., & Han, D. W. (2001). The related factors of alcohol drinking in Korean young adults. *J Korean Public Health Assoc*, 27(2), 130-143.
- Hong, J. Y., & Kang, H. S. (2003). The effect of substance abuse prevention program on high school students: focused on alcohol and smoking. *J Korean Soci for Health Educ and Promotion*, 20(3), 61-76.
- Jang, S. H., An, C. S., Kim, Y. H., Kim, Y. S., & Yang, H. S. (2002). A study on the alcohol drinking behavior among high school students in Suncheon area. *Suncheon Cheongam College Collected Papers*, 26, 161-187
- Jekarl, J. (2001). *Survey on drinking habit of Korea*. Seoul: The Korean alcohol research foundation.
- Jeong, Y. O. (1999). *A study on knowledge, attitude and educational need about drug abuse of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 Kam, S., Lee, K. H., Park, K. S., Kim, J. Y., Lee, Y. J., Kang, Y. S., & Kim, S. W. (2000). Smoking and alcohol abuse status and its related factors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Taegu city. *J Korean Soc Matern and Child Health*, 4(2), 233-253.
- Kang, H. Y., Shin, K. E., Jang, H. J., Na, Y. H., & Cho, E. H. (2004). Drinking motives and drinking-related problems among korean high school students. *J Korean Soc Sch Health*, 17(2), 85-96.
- Kim, J. Y. (2001a). *Development of drinking prevention program for high school students*. Seoul: The Korean alcohol research foundation.
- Kim, J. Y. (2001b). *Manual of drinking prevention program for high school students*. Seoul: The Korean alcohol research foundation.
- Kim, Y. S. (1999).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blematic drinking and psychiatric symptoms among adolescents. *Adolesc*, 7, 27-45.
- Kim, Y. S. (2001). *Effectiveness evaluation and development of school-centered drinking prevention program for adolescents*. Seoul: MOHW.
- Lee, J. K. (2004). *4HC(Four Hour's Change)*. 2004 KARF Conference: Drinking Problem Prevention Program. Seoul: The Korean alcohol research foundation.
- Lee, K. H. (2004). *The effect of the drinking prevention program on drinking knowledge, drinking attitude and self-esteem of effect of drinking prevention program for middle school students on drinking knowledge and drinking attitud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 Lim, K. H. (1999). *A study on the influences of psychosocial variables on drinking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 Lim, K. M., & Kim, S. J. (2002). The effect of drinking prevention program on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and alcohol expectancy of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11(4), 548-559.
- Moon, J. S., Yang, S., Park, H. R., & Lee, E. S. (2000). Direction in health education of drinking prevention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J Community Health Nurs Acad Soc*, 14(1), 68-79.
- Nam, K. K., Lee, B. U., Choi, M. J., & Lee, C. H. (2001). *Development and propagation of adolescents drinking prevention program for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Seoul: MOHW.
- Park, E. S., & Lee, J. S. (1999). The effect of substance abuse prevention education on high school students. *J Nurs Sci*, 4(1), 127-148.
- Topolski, T. D., Patrick, D. L., Edwatts, T. C., Huebner, C. E., Connel, F. A., & Mount, K. K. (2001). Quality of life and health-risk behaviors among adolescents. *J Adolesc Health*, 29(4), 426-435.
- Yoon, H. M. (2000). Drinking behavior and factors that influence alcohol use among university students. *Trade Union of Human Ecol*, 3(1), 1-15.
- Yoon, H. M. (2002). Developing school-based drinking prevention program for the youth Focused on middle school students. *Home Econ Res*, 5, 111-121.
- Yoon, H. M., Kim, Y. S., & Jang, S. O. (1999). Alcohol expectancies in relation to their drinking practices among Korean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 Soc Welfare*, 38, 153-179.

Effect of Drinking Prevention Program on Drinking Related Knowledge, Attitude,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and Behavior of High School Girls

Choi, Soon Hee¹⁾ · Park, Min Jung²⁾

1) Professor, Chonnam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2) Adjunc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onnam Techno College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determine the effect of drinking prevention program on the levels of drinking related knowledge, attitude,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and behavior in high school girls. **Method:** This was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post test design. The subjects were 133 high school girls who were conveniently assigned to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May to September, 2005 and analyzed using Chi-square test, t-test and ANCOVA. **Results:** 1. The 1st hypothesis, "The drinking-related knowledge score of experimental group will b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control group in posttest" was supported ($F=256.30$, $p=.001$). 2. The 2nd hypothesis, "The drinking-related attitude score of experimental group will b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control group in posttest" was supported ($F=43.35$, $p=.001$). The 3rd hypothesis, "The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of experimental group will b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control group in posttest" was supported ($F=43.86$, $p=.001$). 4. The 4th hypothesis, "The number of drinking of experimental group will be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control group in posttest" was supported ($F=6.12$, $p=.015$). 5. The 5th hypothesis, "The drinking amount of experimental group will be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control group in posttest" was supported ($F=8.52$, $p=.004$). 5. **Conclusion:** This drinking prevention program was effective in increasing the drinking-related knowledge and attitude, and the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and in reducing the drinking behavior of high school girls.

Key words : Prevention, Knowledge, Attitude, Self efficacy, Drinking behavior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Choi, Soon He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5, Hak1-Dong, Dong-gu, Gwangju 501-746, Korea

Tel: 82-62-220-4345 Fax: 82-62-220-4544 E-mail: sh3749@hanmail.net